통일화보

주체111(2022)년 (1—2월) 1호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한평생

한없이 숭고한 인민사랑으로 수놓아진 성스러운 려정

온 나라가 기적과 혁신으로 세차게 들끓는다

류다른 기쁨속에 맞이한 설명절

ISSN2305 8544
9 772305 854008

통일화보

주체111(2022)년 1호 (1—2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탄생 80돐에 즈음하여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2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한평생 4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 2022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10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대회결정관철의 첫해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는데 공헌한 공로자, 로력혁신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2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하시였다 1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 진행 18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련포남새온실농장 건설예정지를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20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요무기체계를 생산하고있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2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2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탄생 8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혁명의 성지 삼지연시에서 성대히 진행 28

련포온실농장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격동적인 연설을 하시고 몸소 착공의 첫삽을 뜨시였다 30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를 지도하시였다 32

한없이 숭고한 인민사랑으로 수놓아진 성스러운 려정 34

유리공예 《룡등사해》 47

소 식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 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 진행 54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9차대회 진행 56

제2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진행 57

국방과학원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 진행 58

전술유도탄검수사격시험 진행 59

철도기동미싸일련대 검열사격훈련 진행 60

국방과학원 중요무기시험 진행 61

14

24

48

64

74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싸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 진행 62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중요시험 진행 63

공화국의 현실

온 나라가 기적과 혁신으로 세차게 들끓는다 64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고 68

지식형의 근로자,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들로 70

수도시민들의 식생활개선에서 큰 몫을 맡은 책임감을 안고 72

40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민족료리봉사기지 청류관 74

꽃향기 풍겨오고 폭포수 흘러내리는듯 78

평양의 설경 82

류다른 기쁨속에 맞이한 설명절 84

인기있는 력사만화영화 《고주몽》의 창작가들 88

녀자력기발전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녀성 92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백금산》의 고수머리 94

《어제날의 장애자소녀가 대학생이 되였습니다》 96

84

슬기로운 우리 민족

력사유적 칠성문 100

옛 그림 김홍도와 그림 《집짓기》 101

. . . .

《더 안전한 사회》, 허망한 개꿈 98

표지: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 백두성지에 펼쳐진 불보라

뒤표지: 련광정의 설경

편집: 리대성, 정철성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무궁토록 빛을 뿌린다
인민위해 바치신 어버이사랑
누리에 그 미소 찬란하다
이 강산 밝히는 해빛처럼

노래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중에서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한평생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끝없이 사랑하시였으며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였습니다.

김 정 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전 기간 현지지도하신 로정거리는 167만 4 610여리, 찾으신 단위는 연 1만 4 290여개에 달한다.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사랑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100(2011)년 8월

락원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64(1975)년 8월

어린이옷견본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73(1984)년 8월

강원도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88(1999)년 3월

절세위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속에 해가 뜨고 날이 저무는 2월이 왔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느라면 인민을 위해서는 고생도 락으로 여기시며 불철주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그 헌신의 자욱자욱이 가슴마다에 안겨온다.

사나운 눈보라도, 삼복철의 찌는듯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의 행복이 꽃펴날 래일을 그려보시며 끝없이 찾고찾으신 발전소 건설장과 공장, 기업소의 구내길은 그 얼마이며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궂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걷고걸으신 농어촌길은 또 얼마였던가.

나의 한생을 쥐여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밖에 나올것이 없다, 나 **김정일**우에 인민이 있고 **김정일**은 인민의 아들이다.

얼마나 위대한분을 어버이로 모시고 살았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게 하는 이 말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한 길에 뿌려가신 만복의 씨앗들이 오늘은 행복의 열매가 되여 이 땅우에 주렁진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창전거리며 광복지구상업중심…

해빛도 찬란한 2월의 강산에 높이 울려퍼진다.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을 합치면 오직 인민뿐이라 부르는 온 나라 인민들의 노래소리가.

과일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90(2001)년 9월

새집들이한 제대군인신혼부부의 가정을 방문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98(2009)년 1월

광복지구상업중심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100(2011)년 12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 2022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11(2022)년 새해에 즈음하여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귀한 한평생을 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만년초석으로 고이시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시고 오늘도 온 나라 인민의 신념의 기둥이 되시여 백승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더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에 절대충성하고 조국과 인민이 부여한 무거운 책무를 다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대한 투쟁이 예고된 올해를 혁명적대경사의 해, 휘황한 미래에로 나아가는 위대한 진군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으로 되게 할 철석의 맹세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대회결정관철의 첫해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는데 공헌한 공로자, 로력혁신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의 첫해투쟁에서 남다른 공훈을 세운 공로자, 로력혁신자들을 만나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혁명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견인불발의 완강한 노력으로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소중한 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2021년을 빛나게 결속하는데 공헌한 공로자, 로력혁신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기 위한 새해의 장엄한 투쟁에서도 핵심적, 선구자적역할을 계속 훌륭히 수행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부흥을 위한 전 인민적인 총진군에 헌신분투하여 위대한 새 승리를 안아오는데 기여할 불같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를 참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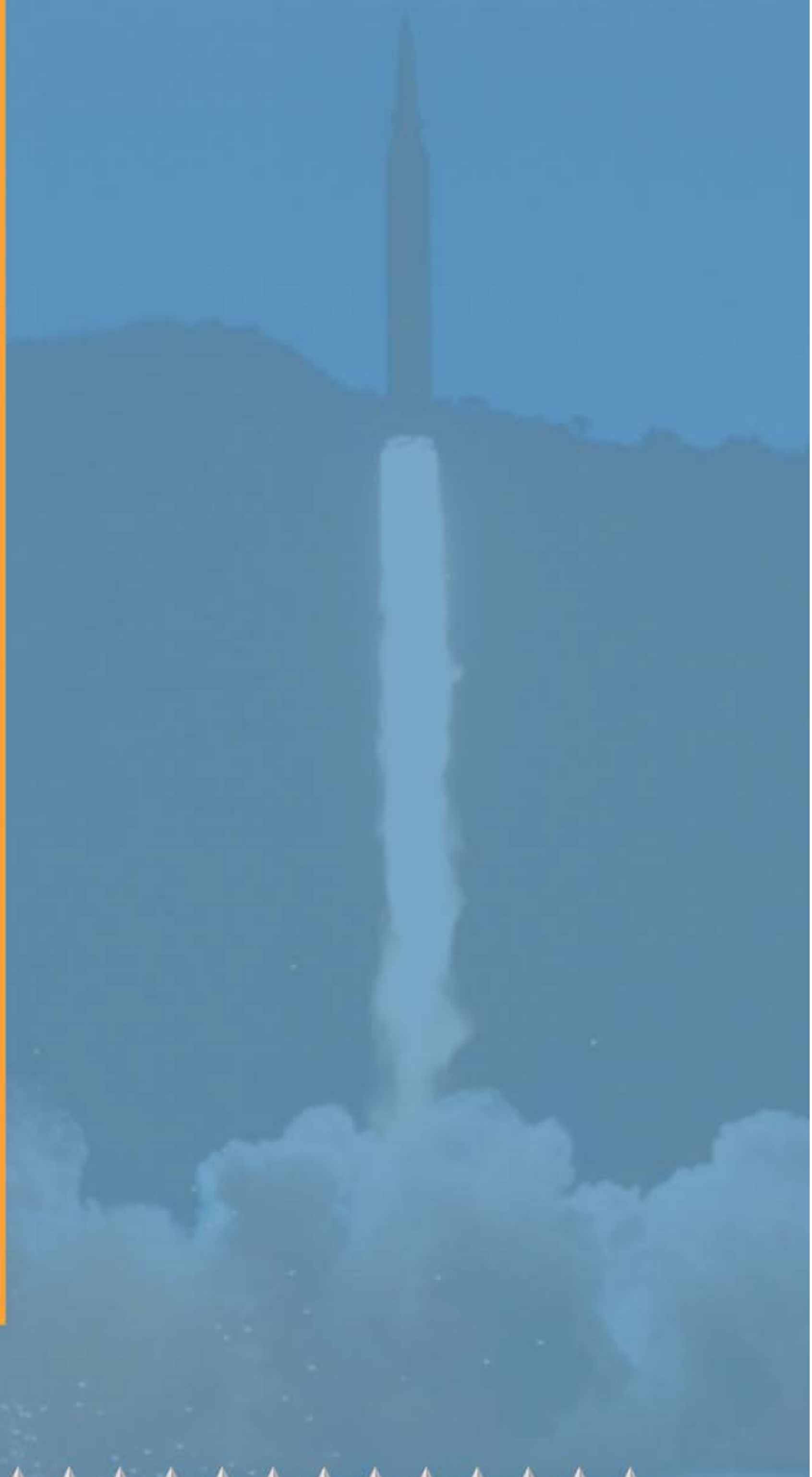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험발사에 앞서 국방과학원 원장으로부터 극초음속미싸일무기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청취하시였다.

려명이 밝아올무렵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새벽하늘의 고요와 미명의 장막을 밀어내며 주체무기의 발사폭음이 천지를 뒤흔들고 화광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속에 강위력한 조선의 힘의 실체가 하늘로 솟구쳐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의 핵심5대과업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극초음속무기개발부문에서 대성공을 이룩한 미싸일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의 실천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대의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국방발전정책과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력사적인 성업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들을 쟁취해야 한다고 고무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극초음속무기연구개발부문의 핵심성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부르시여 뜨겁게 축하해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첨단국방과학연구성과로써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리라는 커다란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극초음속무기연구개발부문의 핵심성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과 국가의 당면사업과 중요정책적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1월 1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8기 제6차회의를 소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정치국회의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10돐과 위대한 장군님 탄생 80돐을 성대히 경축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력사적인 올해의 태양절과 광명성절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을 당의 령도따라 끝까지 계승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더욱 억척같이 다지고 주체110년대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는 승리자의 년대로 빛내이려는 전체 인민들의 드높은 열의와 혁명적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계기로 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을 성대히 경축할데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다음으로 현 조선반도주변정세와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분석보고를 청취하고 금후 대미대응방향을 토의하였다.

정치국회의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대조선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하였으며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는 사회주의조선의 거룩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이 땅우에 자주적이며 존엄높은 강대국을 기어이 건설하려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의지와 불굴의 기상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련포남새온실농장 건설예정지를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이 일떠서게 될 함경남도 함주군 련포지구 건설예정지를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2019년 4월 몸소 현지를 답사하시며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지구에 건설한 온실농장보다 더 방대한 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련포지구에 일떠세울 구상을 펼치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 그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설계사업을 지도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실농장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각 부문별로 분과들을 내오는 문제, 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고 건설자재보장과 온실설비제작을 선행하며 시공지도와 건설감독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방풍림조성과 원림록화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등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와 함께 온실농장을 다음해부터 운영할수 있게 기술자, 종업원선발교육을 따라세우며 남새종자보장과 농기계, 영농물자확보를 동시에 내밀어 하루빨리 인민들의 식생활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농장, 당의 온실농장건설정책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만점짜리로 일떠세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함주군 련포남새온실농장 배치계획안과 조감도

배치도

조감도

건설규모

- 총부지면적 : 310 여정보
- 그중 온실농장구획 : 280 여정보 (사료포전 35 정보포함)
- 농장살림집구획 : 30 여정보

주요 자재소요량

[illegible]

주요 공사량

- 온실 : 852개호동(100정보)
  - 그중 반궁륭식2중박막수경온실 : 604 개호동(59.25정보)
  - 반궁륭식2중박막토양온실 : 230 개호동(22.75정보)
  - 량경사면련결식유리수경온실 : 1 개호동(1정보)
  - 량경사면련결식유리토양온실 : 1 개호동(1정보)
  - 궁륭련결식박막토양온실 : 16 개호동(16정보)
  - 열매남새온실 : 54.85 정보
  - 잎남새온실 : 39.75 정보
  - 모기르기온실 : 5.4 정보
  - ※ 수경온실 대 토양온실 비률 6:4
- 농장살림집 : 970여세대(6만 9,200여㎡)
- 공공 및 생산건물,기타건물 : 135 개동 (4만 8,400여㎡)
  - 그중 공공건물 : 47 개동 (2만 8,800여㎡)
  - 생산건물 : 23 개동 (1만 5,100여㎡)
  - 기타건물 : 65 개동 (4,500여㎡)
- 외부망 : 연240 여㎞
  - 그중 전기 및 체신선로 : 30 여㎞
  - 상수,오수 및 우수관로 : 180 여㎞
  - 도로 : 30 여㎞
- 성토량 : 150 여만㎥
- 로력수 : 520 여만공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요무기체계를 생산하고있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요무기체계를 생산하고있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무력의 현대화와 나라의 국방발전전략 실현에서 공장이 맡고있는 위치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을 우리 국방공업의 현대성을 상징하는 본보기공장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과 군검수원들이 당의 혁명위업을 강위력한 첨단무장으로 옹위해나갈 일념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군수생산으로 당과 혁명을 보위해온 자랑스러운 우리 국방공업의 전통과 력사를 이어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군수정책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야 한다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이 2월 12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화성지구의 천지개벽으로 수도건설의 대번영기를 더욱 빛내이자》라는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건설부문앞에 나선 가장 주되는 과업의 하나인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지난해에 시발을 뗀 우리 당의 숙원사업인 평양시 살림집전망목표수행의 두번째 공사인 동시에 이 지구에 새로운 현대적도시구획을 일떠세우기 위한 첫 단계의 건설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성지구에서 전개되는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서 앙양된 투쟁열의와 공세적인 전진기상이 높이 발양되고 더 신심있고 더 의의있는 커다란 성과가 쟁취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올해의 대건설전투를 강력하고 주도세밀하게 전개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착공을 알리는 발파폭음이 2월의 봄하늘을 뒤흔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의 뜻과 의지를 열혈의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전투적위력과 사회주의조선의 혁명적기상을 과시하는 대건설투쟁에 다시금 총궐기한 미더운 군인건설자들을 뜨겁게 격려하시였다.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따라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기세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드높은 애국적열정과 비상한 창조정신, 웅대한 목표실현에로 용진하는 우리 국가의 발전상과 잠재력을 뚜렷이 실증하게 될것이다.

화성지구 1만세대살림집건설착공식
주체111(2022)년
2월 12일

결사관철
결사옹위
자력갱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탄생 8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혁명의 성지 삼지연시에서 성대히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탄생 80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지난 2월 15일 혁명의 성지 삼지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앞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거룩한 영상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력사적진군길에서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존함을 혁명의 붉은기로 높이 들고 장군님의 혁명유산을 도약대로 하여 받들어올린 반만년민족사의 가장 긍지스러운 시대를 안아보면서 조선의 2월이 간직하고있는 심원한 무게와 의의에 대하여 감격스럽게 새겨안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동서고금에 없는 비범한 탄생과 남다른 성장으로부터 시작된 절세위인의 고귀한 혁명생애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자존의 넋을 심어주시고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강국건설의 제일가는 밑천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투쟁하며 전진하여온 격동의 나날들을 무한한 긍지속에 돌이켜보면서 당중앙의 탁월한 령도가 있기에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중앙보고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며 이 땅우에 자력으로 부강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고 우리 혁명의 새로운 100년대를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내여갈 참가자들의 드팀없는 의지와 열정이 차넘치는 속에 진행되였다.

련포온실농장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격동적인 연설을 하시고 몸소 착공의 첫삽을 뜨시였다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당겨오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의 결정, 포치에 따라 함경남도 함주군 련포지구에 대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이 일떠서게 된다.

련포온실농장건설착공식이 2월 18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격동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련포온실농장을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크고 현대적인 온실농장,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실물교육농장, 우리식 농촌문명창조의 새로운 거점,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장으로 건설하며 이를 기준, 봉화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 농촌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확신성있게 추진하려는 당중앙의 구상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련포온실농장건설착공식을 기념하여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시고 직접 발파단추를 누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의 사상과 위업을 옹위하는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고 결사관철의 불사신이 될 충성의 일념으로 용기백배, 기세충천한 미더운 군인건설자들에게 오래도록 따뜻이 손저어주시였다.

위대한 당중앙의 숭고한 인민관이 응축된 련포온실농장건설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투쟁과업과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의 철저한 실행을 위한 총진군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들의 혁명적진군기세를 더욱 고조시키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가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결론 《초급당비서들은 어머니당의 참된 정치일군이 되자》를 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 표창장이 모범적인 초급당비서들에게 수여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표창수여와 관련하여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당강화의 대업을 이룩하는데서 초급당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재삼 강조하시면서 우리 혁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중대시기에 당정책집행의 기본전투단위를 책임진 무거운 사명과 임무를 자각하고 심혼을 깡그리 바치는 훌륭한 당일군들, 성실한 인민의 심부름군들을 찾아낸것을 하늘의 별을 따온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한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장내가 크나큰 격정으로 끓어번지는 가운데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초급당비서들에게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시고 우리 당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페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는 전당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초급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여 당대회가 결정한 변혁적과업들의 정확한 집행을 담보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과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의의깊은 대회로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한없이 숭고한 인민사랑으로 수놓아진 성스러운 려정

격동의 10년이 흘렀다.

피눈물의 12월에서 떠난 준엄했던 길, 얼마나 멀리도 오고 얼마나 많은 시련의 산과 바다를 넘고 헤치며 여기까지 왔던가.

삶가 더듬어볼수록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리는 눈과 비를 남먼저 맞으시고 이 나라 새벽문을 제일먼저 여시며 언제나 마를새 없었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옷자락이 뜨겁게 어려와 가슴은 뭉클 젖어든다.

도처에 인민을 위한 선경거리, 선경마을들과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일떠세우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창조물들에 자그마한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먼지 흩날리는 건설장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세심히 지도해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 새겨가신 폭열강행군, 눈보라강행군, 심야강행군길이 있어 이 땅의 모든 재부가 인민의 재부로,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밑거름으로 되고 온 세계가 부러워마지 않는 눈부신 조선의 현실, 위대한 인민의 행복상이 펼쳐진것 아니랴.

마식령스키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2(2013)년 12월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삼지연시와 대청리, 강북리, 검덕지구를 비롯한 자연재해를 당한 지역들에 일떠선 멋쟁이살림집들…

그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의지에 떠받들려 이 땅우에 펼쳐진 숭고한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4(2015)년 10월

날마다 커가는 인민의 행복 불밝은 창가마다 어려있는 려명거리

산간문화도시의 훌륭한 표준으로 변모된 삼지연시

우리 나라 김치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6(2017)년 1월

김치생산의 공업화, 과학화가 실현된 류경김치공장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에서 더없는 희열을 느끼시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걷고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헌신의 자욱이 있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식료가공기지들과 온실들이 도처에 수많이 일떠섰다.

풍요한 남새작황이 펼쳐진 중평남새온실농장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을 생산하는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인민들의 기쁨에 넘친 웃음소리 드높은 릉라인민유원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공화국은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우뚝 솟구쳐오르고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향유하는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나날이 높아만 가고있다.

행복의 물결 출렁이는 문수물놀이장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8(2019)년 11월

사회주의문명의 별천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7(2018)년 1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인민을 위한 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헌신의 세계에 떠받들려 이 땅우에는 현대적인 교육기지들과 의료봉사기지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훌륭히 꾸려진 평양중등학원에서 마음껏 배우며 희망을 꽃피우는 원아들

교육자양성의 원종장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는 대학생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있는 류경치과병원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로 일떠선 류경안과종합병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3(2014)년 7월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노래소리 그칠줄 모르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억대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후대사랑속에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행복의 집, 사랑의 궁전들에서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진다.

룡악산에 오른 만경대소년단야영소의 야영생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야영생활을 즐기는 행복동이들

아이들을 위한 야영기지로 훌륭히 변모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의 전경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10(2021)년 9월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공화국인민들

유리공예

《룡등사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중국 《인민일보》 대표단이 드린 선물

주체100(2011)년 8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는 각계층 근로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탄생 80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장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온 겨레는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경모의 마음 안고 금수산태양궁전과 절세위인들의 동상, 태양상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굽이치는 속에 평양에서는 제1차 광명성절경축인민예술축전, 중앙미술전시회, 제10차 광명성절료리기술경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었다.

삼지연시에서는 눈얼음조각풍경이 특색있게 펼쳐지고 밤하늘가에 축포가 터져올라 인민의 리상거리에 황홀경을 수놓았으며 평양시를 비롯하여 전국각지에서 예술공연,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들이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수도의 문화휴식터들에서는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으며 급양봉사망들은 다양한 명절봉사를 받는 사람들로 흥성이였다.

당일 저녁 평양과 도소재지들에서 진행된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는 명절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에서도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총련중앙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온 겨레는 광명성절경축행사들을 통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속깊이 새겨안았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 용약 떨쳐나설 불같은 열의를 가다듬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경축하여 삼지연시에서 축포발사가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탄생 80돐경축 대공연 《빛나라 정일봉》의 한 장면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노래들이 무대에 오른 제1차 광명성절경축 인민예술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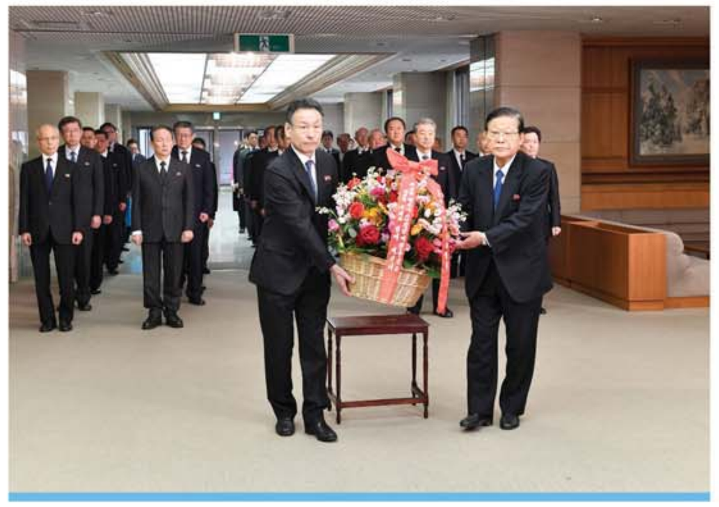
청춘거리 수영경기관에서 진행된 광명성절경축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

광명성절경축 산업미술전시회장을 찾은 근로자들

김일성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80돐에 즈음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서 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탄생 80돐경축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진행되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일군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80돐경축 총련중앙사진전시회와 총련중앙강연회도 진행되였다.

2월의 백두산악

소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가 2월 6일부터 7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시, 군인민위원장들, 도급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10(2021)년 사업정형과 주체111(2022)년 과업에 대하여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내각총리 김덕훈대의원이,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재정상 고정범대의원이 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셋째 의정과 넷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대의원이 하였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과 넷째 의정에 대한 토론에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폐회사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는 혁명의 요구와 시대의 지향, 인민들의 기대를 항상 자각하고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맡고 있는 책무에 무한히 충실할 대의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 소 식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9차대회 진행

로동신문

김 정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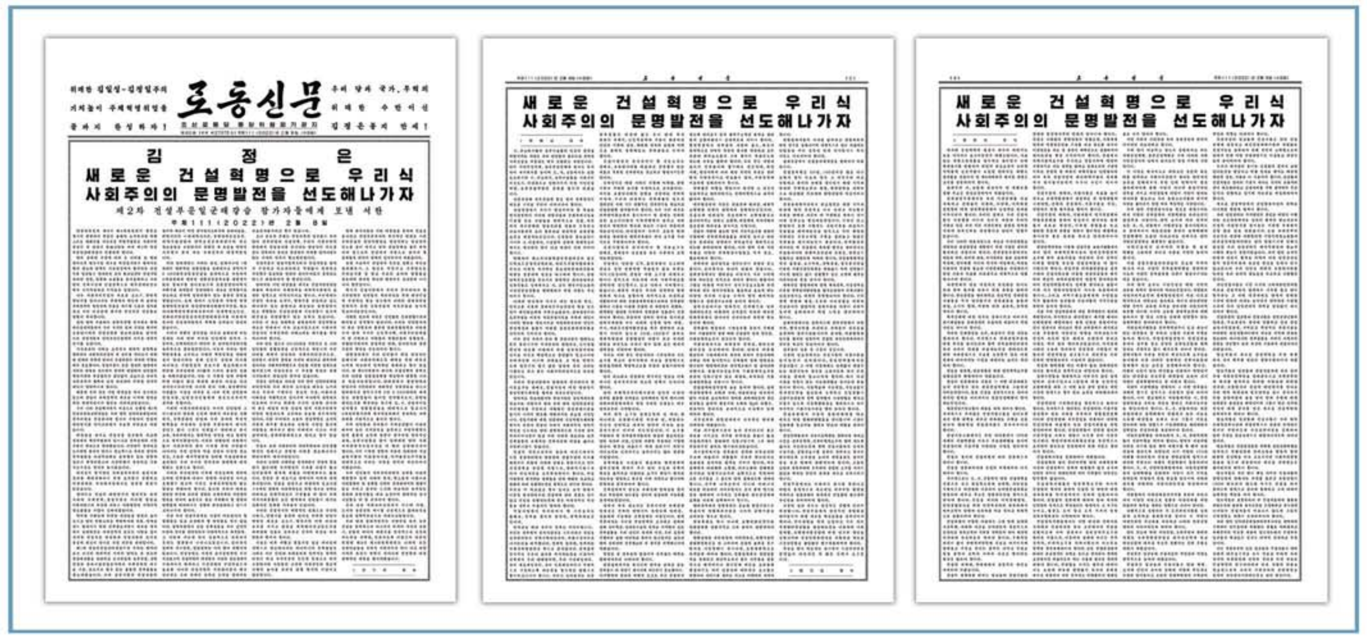
농업근로자동맹은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부대가 되자

농업근로자동맹은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부대가 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서한을 보내시였다.

| 소 식 |

제2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진행


로동신문

김 정 은

새로운 건설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해나가자

새로운 건설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해나가자

새로운 건설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2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였다.

국방과학원 극초음속미싸일 시험발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지난 1월 5일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극초음속미싸일부문에서의 련이은 시험성공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전략무력의 현대화과업을 다그치고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중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을 완수한다는 전략적의의를 가진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다계단활공도약비행과 강한 측면기동을 결합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조종성과 안정성이 뚜렷이 과시되였다.

전술유도탄검수사격시험 진행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지난 1월 17일 전술유도탄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되였다.

검수사격시험은 생산장비되고있는 전술유도탄들을 선택적으로 검열하고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 서부지구에서 발사된 2발의 전술유도탄은 조선동해상의 섬목표를 정밀타격하였다.

국방과학원은 생산되는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안전성, 운용효과성을 확인하였다.

| 소 식 |

철도기동미싸일련대 검열사격훈련 진행

평안북도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실전능력판정을 위한 검열사격훈련이 지난 1월 14일 진행되였다.

검열사격훈련은 철도기동미싸일련대 전투원들의 전투준비태세를 검열하고 화력임무수행능력을 높여주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철도기동미싸일련대는 14일 오전 총참모부로부터 불의에 화력임무를 접수하고 신속히 지적된 발사지점으로 기동하여 2발의 전술유도탄으로 조선동해상의 설정목표를 명중타격하였다.

강평에서는 훈련에서 신속한 기동성과 명중성을 보장한 평안북도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전투동원태세가 높이 평가되였으며 전국적인 철도기동미싸일운용체계를 바로세우고 우리 식의 철도기동미싸일전법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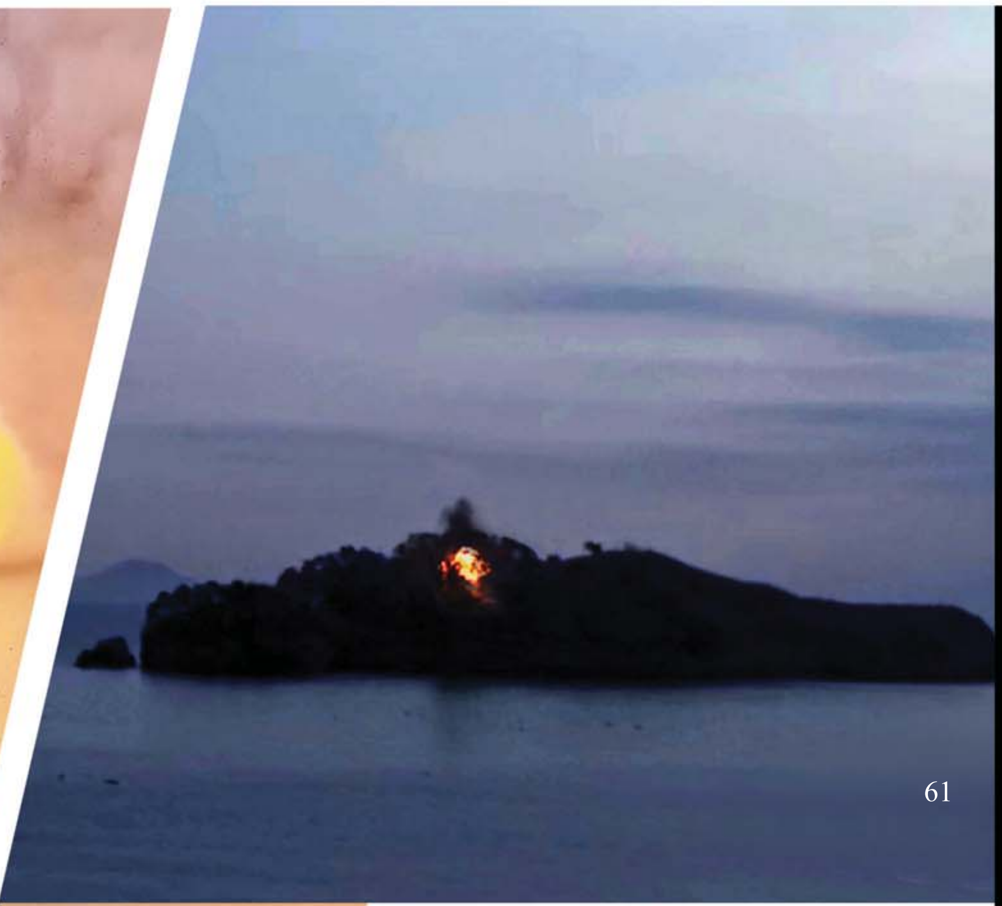
| 소 식 |

국방과학원 중요무기시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지난 1월 25일과 27일 장거리순항미싸일체계갱신을 위한 시험발사와 지상대지상전술유도탄 상용전투부위력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각각 진행하였다.

1월 25일에 발사된 2발의 장거리순항미싸일들은 조선동해상의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목표섬을 명중하였다.

1월 27일에 발사된 2발의 전술유도탄들은 목표섬을 정밀타격하였으며 상용전투부의 폭발위력이 설계상요구에 만족된다는것이 확증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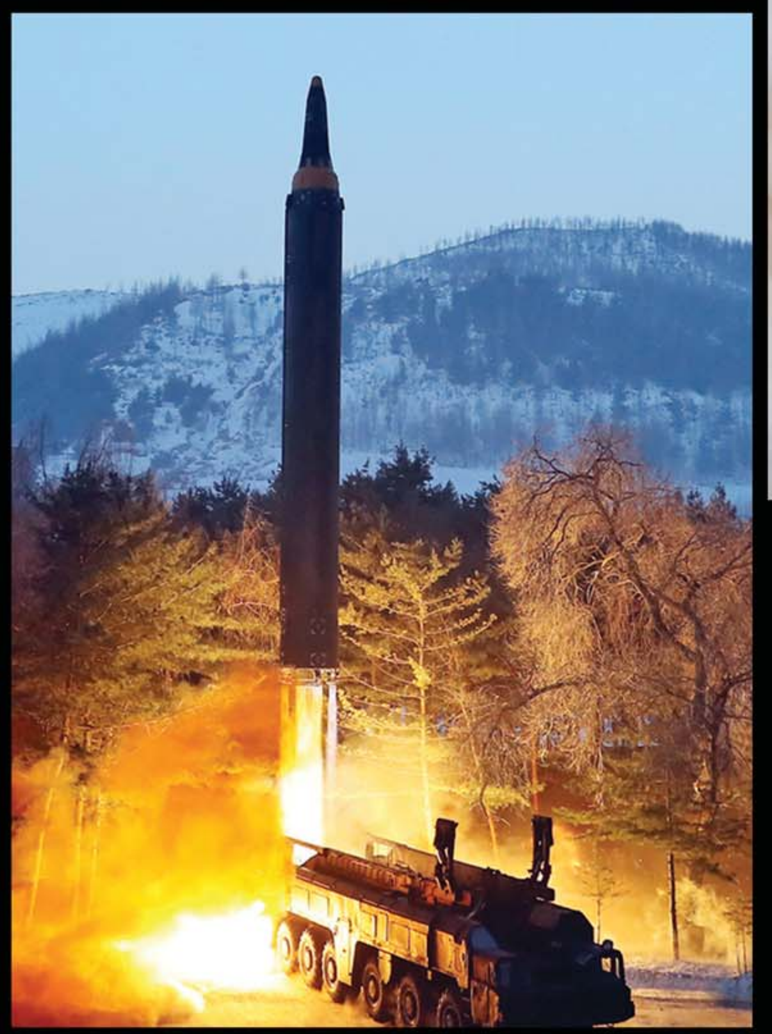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싸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 진행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지난 1월 30일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싸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되였다.

검수사격시험은 생산장비되고있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싸일 《화성-12》형을 선택검열하고 전반적인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국방과학원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 서북부지구에서 조선동해상으로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사격시험을 진행하였다.

국방과학원은 생산되는 《화성-12》형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안전성, 운용효과성을 확인하였다.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중요시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지난 2월 27일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하였다.

중요시험을 통하여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특정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촬영을 진행하여 고분해능촬영체계와 자료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들의 특성 및 동작정확성을 확증하였다.

이번 시험은 정찰위성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으로 된다.

온 나라가 기적과 혁신으로 세차게 물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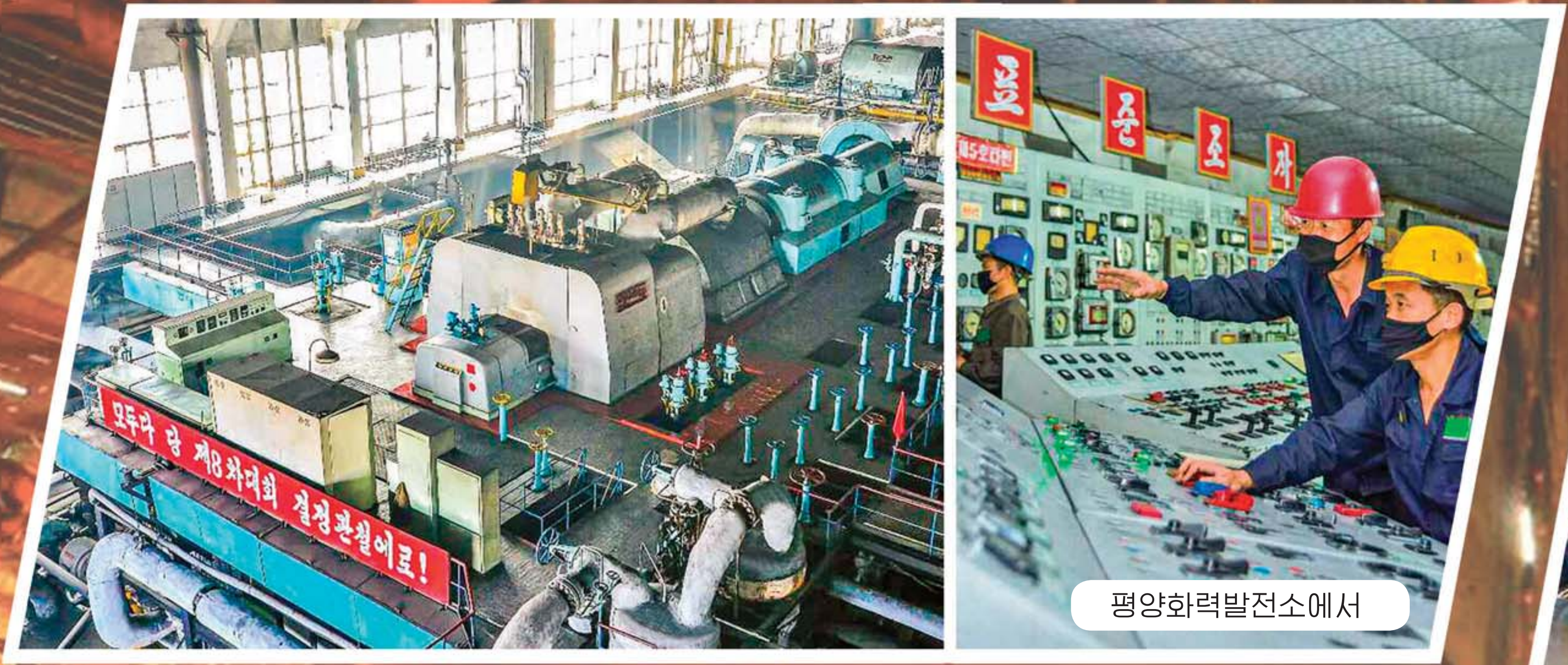
한겨울의 맵짠 추위로 얼어든 대지를 뜨겁게 달구며 온 나라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기적과 혁신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경제건설의 1211고지인 대규모야금기지들과 굴지의 화학공업기지들, 생산장성의 동음높은 발전소들과 수천척 지하막장을 비롯하여 나라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맹렬한 증산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용암마냥 타오르는 결사관철의 불길은 올해에 알곡생산의 더 높은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비상한 각오를 안고 새해 농사차비로 들끓는 협동전야와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는 전국의 경공업공장들에서도 타오르고있다.

새해의 진군길에 보폭을 내짚은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서 이룩되고있는 혁신적성과들은 5개년계획수행의 두번째 해에 기어이 비약의 활로를 열어놓으려는 공화국인민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며 총진군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있다.

맹렬한 증산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



평양화력발전소에서

상원석회석광산에서

평양조차장역에서

연안군 오현협동농장에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학생교복천생산으로 기대마다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높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1

2

4

3

| 공화국의 현실 |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고

경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학생교복천과 가방천, 각종 학용품생산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교복과 학용품을 보장하는것은 당과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형태의 질좋은 교복과 가방을 모든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공급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이를 위한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고 교복천과 가방천, 학용품생산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로동계급의 비상한 각오와 집단적혁신으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가방공장, 소나무학용품공장, 민들레학습장공장, 평양수지연필공장을 비롯한 각지의 수많은 일터들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교복천과 가방천생산을 시작한데 이어 전국의 학령전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할 학용품생산이 적극 추진된다는 소식에 접한 각계층 인민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한 일인데 어찌 가만히 앉아있겠는가고 하면서 성의껏 지원물자를 마련하고 밤을 새워 위문편지도 썼으며 경제선동도 준비하여가지고 련일 생산자들을 찾고있다.

학생들에게 공급할 교복과 학용품생산으로 들끓는 그 어느 일터에 가보아도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에 대한 고마움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위해 몸과 마음 다 바쳐갈 인민들의 불같은 맹세를 읽을수 있다.

사진 최광혁, 글 윤금철

1 질좋은 학용품을 생산하고있는 소나무학용품공장의 로동자들

2 학습장생산을 다그치는 민들레학습장공장 로동자들의 일손도 드바쁘다.

3 교과서생산을 맡은 교육도서인쇄공장의 로동자들

4 학용품생산의 한몫을 담당한 평양수지연필공장의 녀성로동자들

| 공화국의 현실 |

지식형의 근로자,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들로

- 평양326전선종합공장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평양326전선종합공장에서는 과학기술력량을 자체의 힘으로 꾸리는 사업을 생산에 앞세워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학습열풍을 일으켜 자기 분야의 과학기술지식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자체의 그쯘한 기술개발력량, 인재력량을 키워낼 대담한 목표를 내걸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모든 종업원들이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도록 과학기술보급실을 훌륭히 꾸리고 그 운영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진행해나가고있다.

종업원들모두가 자기 직장의 현행생산에 이바지할수 있는 선진과학기술과 전문기술을 습득할수 있도록 명백한 기술학습방향과 계획을 주고 인식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며 총화대책함으로써 공장현대화와 생산장성에서 실지 그 덕을 보고있다.

공장에서는 또한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의 요구대로 종업원들이 원격교육체계에 적극 망라되여 공부에 전심할수 있게 조건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해주고있으며 기능공양성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결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이 현장들에 도입되고 설비현대화와 제품의 질제고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여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완수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오늘 인재력량을 튼튼히 꾸려놓으면 제기되는 문제들을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단위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 것을 평양326전선종합공장의 현실은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사진 박주성, 글 한진아

공장에서는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학습열풍을 일으켜 자체의 힘으로 그쯘한 기술개발력량, 인재력량을 튼튼히 꾸려가고있다.

수도시민들의 식생활개선에서 큰 몫을 맡은 책임감을 안고

- 평양밀가루가공공장 -

룡악산기슭에 있는 평양밀가루가공공장은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에 생산을 시작한 큰 규모의 밀가루가공기지이다.

공장에는 하루 수백t능력의 밀가루직장과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들이 흐름식으로 되여있는 과자, 빵, 꽈배기, 국수직장 그리고 밀농마를 원료로 발효력이 높은 효모를 생산하는 효모직장 등이 있다.

이 공장은 조업후 오늘까지 질좋은 밀가루와 가공품들을 수많이 생산하여 시안의 봉사단위들에 보내주어 수도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을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이 공장 종업원들의 일손마다에 불이 달렸다.

공장의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문화를 백미밥과 밀가루음식위주로 바꾸는데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생산정상화를 보장하면서도 밀가루와 가공품들의 생산능력을 더 확장하고 그 가지수를 늘이며 질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해나가고있다.

사진 최광혁, 글 윤금철

40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민족료리봉사기지 청류관

민족료리들을 잘 만들어 나라의 음식문화발전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해온 종합적인 민족료리봉사기지인 청류관이 지난해 12월 마흔번째의 생일을 맞았다.

수십여년간 평양랭면, 신선로, 떡국, 전골, 록두지짐 등 민족료리들을 봉사해온 청류관에서 평양랭면은 특색이 있을뿐아니라 양념을 잘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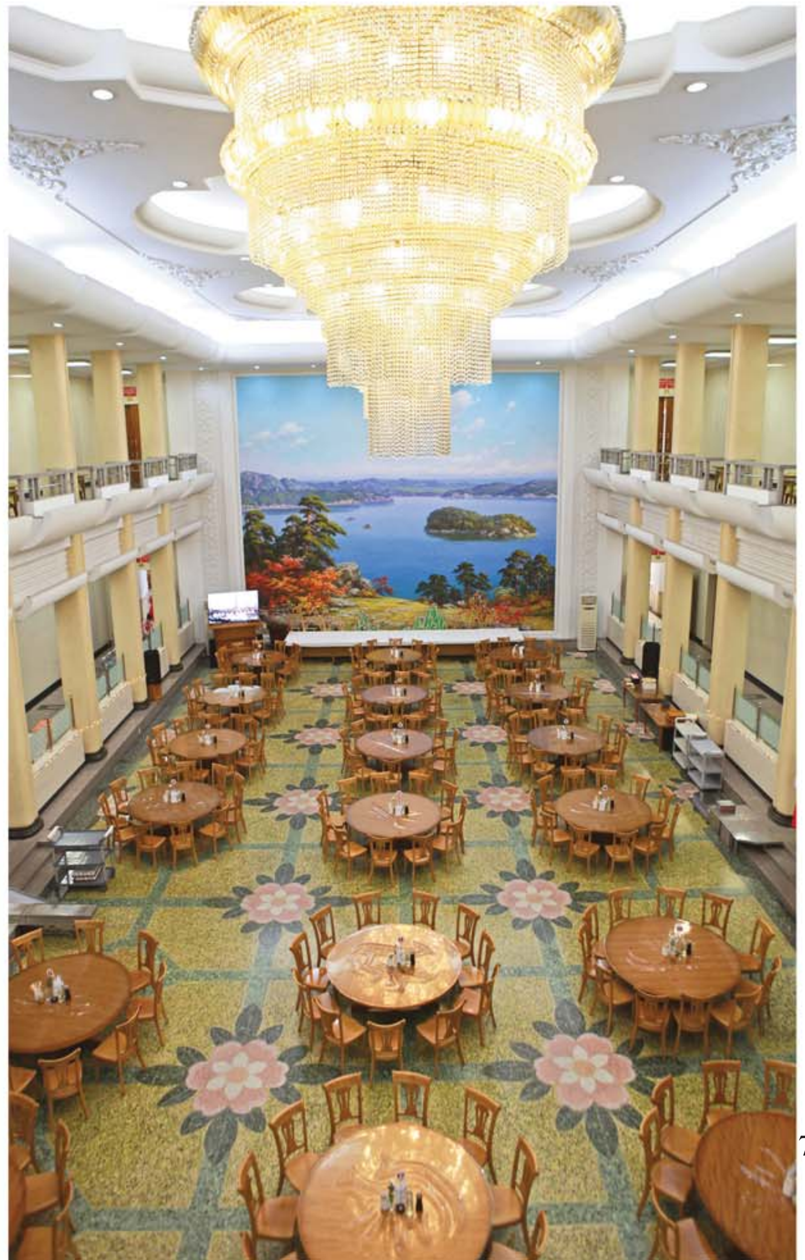
오늘 청류관에서는 민족료리들의 전통제법들을 고수하면서도 청류관특유의 맛을 살려나가기 위해 봉사자들이 고심어린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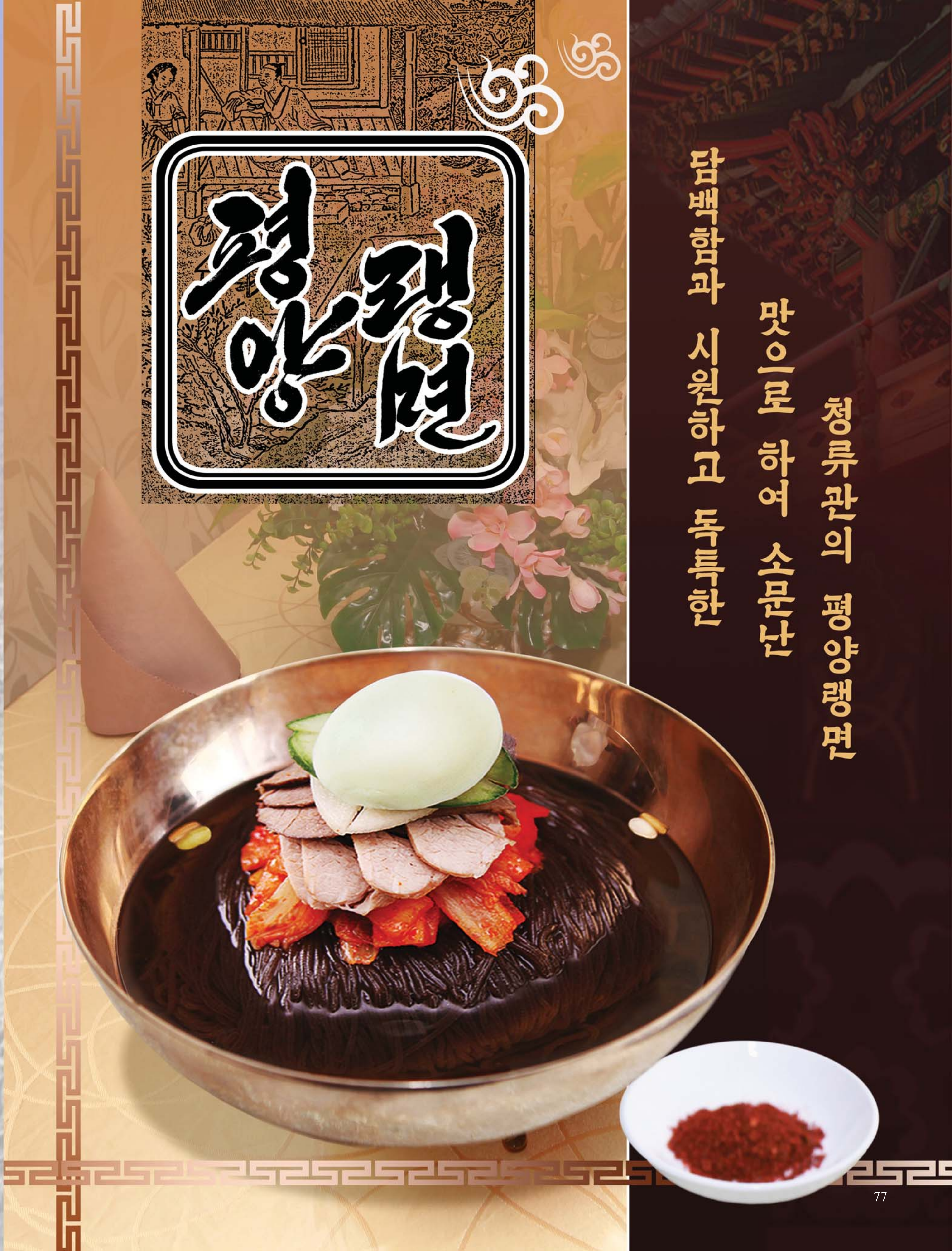
이들은 선조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창조한 조리방법들을 적극 탐구하는 한편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새로운 료리기술을 부단히 습득하고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봉사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봉사활동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있으며 과학적이며 국제표준화된 위생관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나가고있다.

민족특유의 음식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민의 행복과 웃음을 더 활짝 꽃피워가려는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오랜 력사를 가진 청류관은 민족의 향취가 짙게 풍겨오는 집으로 오늘도 사람들속에 그 이름이 널리 전해지고있다.

사진 최광혁, 글 윤금철





평양랭면

담백함과 시원하고 독특한
맛으로 하여 소문난
청류관의 평양랭면

꽃향기 풍겨오고 폭포수 흘러내리는듯

- 룡흥비단상점 -

비단

아롱다롱한 고급비단천들이 마치 폭포수마냥 필필이 늘어지고 가볍고 포근하면서도 고운 색갈과 무늬를 가진 이불과 베개, 남녀실내옷과 아동옷, 애기포단, 민예품 등 각종 비단제품들로 화원처럼 아름답게 단장된 곳.

려명거리의 70층 초고층살림집을 떠이고있는 종합상업구에 있는 룡흥비단상점의 내부이다.

상점에서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특산품인 비단으로 만든 수십여종의 제품들을 전문으로 봉사하는데 수요가 대단히 높다.

비단은 그저 보기에도 고울뿐 아니라 피부에 닿는 감각이 좋아 누구나 기분이 상쾌해진다. 무더운 여름에는 더운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추운 겨울에는 몸온도를 보존하여주며 특이한 소독작용, 해독작용으로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여러 질병들도 절로 낫게 한다.

이렇듯 특이한 작용을 하는 정교하면서도 오묘한 비단제품들에 반해서인지 호평은 날개가 돋친듯 사람들속에 널리 퍼져 상점은 하루가 다르게 손님들로 흥성이고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도 평양에 오면 한번 찾고싶어하는 곳으로 되였다.

사진 라춘송, 글 한진아

고운 색갈과 무늬를 가진 각종 비단제품들로 화려하게 진렬된 룡흥비단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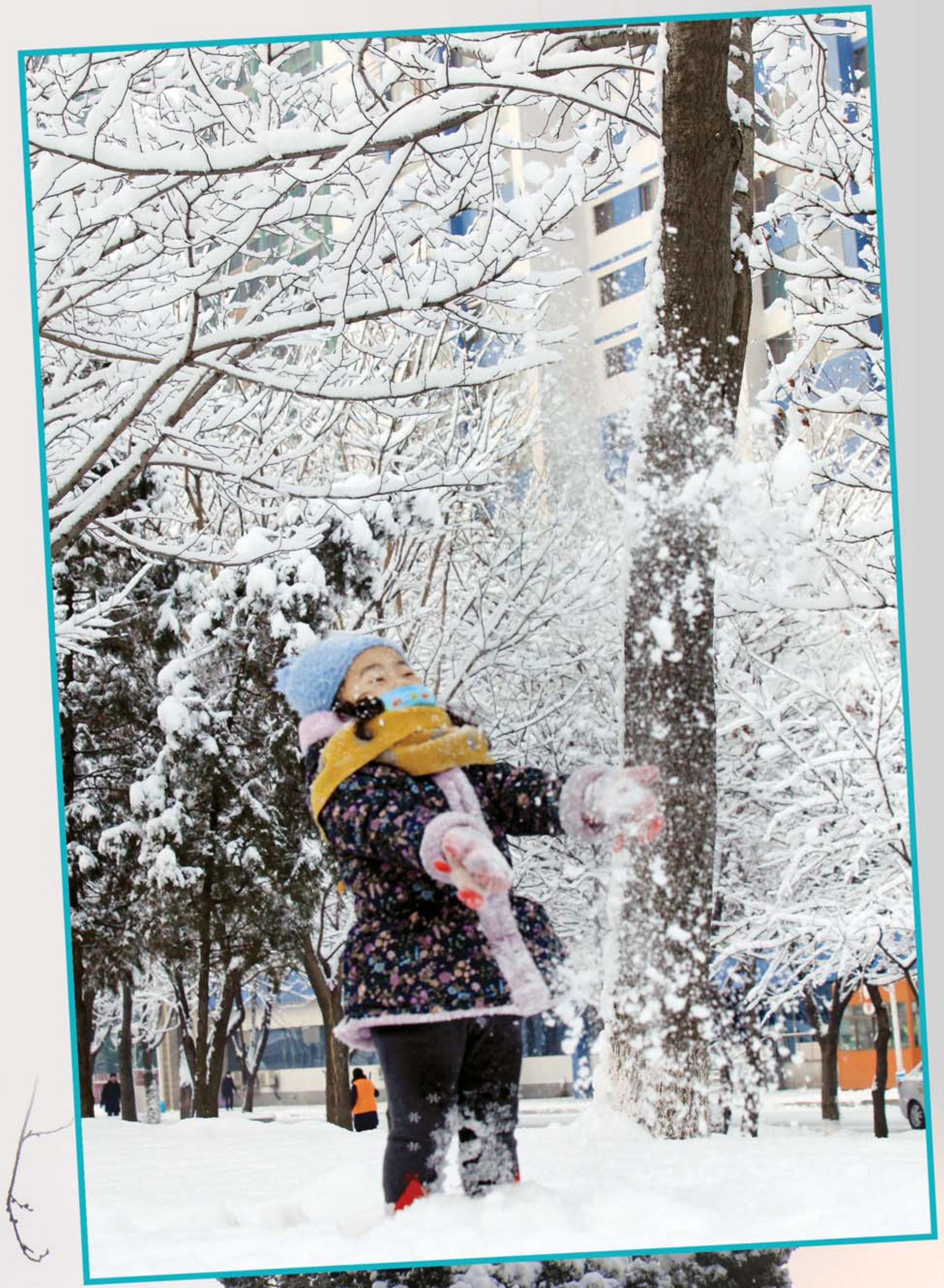
우리 민족의 우수한 특산품인 비단으로 만든 제품들의 일부

비단이불

보기에도 아름답고 피부에 닿는 감각이 좋아 누구나 절로 기분이 상쾌해지는 비단은 무더운 여름에는 더운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추운 겨울에는 몸온도를 보존하여주며 특이한 소독작용, 해독작용으로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각종 질병들도 치료한다.

- 부드러운 느낌
- 특이한 소독작용
- 해독작용

평양의 설경



평양초등학원

류다른 기쁨속에 맞이한 설명절

설명절의 아침이 밝았다.

원아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설명절.

평양초등학원의 원아들은 왜 이토록 설명절을 기다려온것일가.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의 궁전을 지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학원에 찾아오시여 자기들을 한품에 안아 꿈만 같은 행복을 안겨주신 잊지 못할 그날이 바로 5년전의 2월 1일이였으니.

해마다 이날이면 원아들은 그리운 아버지원수님께서 또다시 학원을 찾아주실것만 같았다.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밝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자기들의 행복한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싶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으로 밝아온 올해에 류다른 기쁨속에 설명절을 맞는 원아들의 행복상을 렌즈에 담는다.

사진 박주성, 글 한진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학원을 찾아주시였던 뜻깊은 날에 설명절을 맞는 원아들의 얼굴마다에 절절한 그리움이 어려있다.

설명절의 하루속에 해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세상에 부럼없이 밝고 씩씩하게 자라는 원아들의 기쁨의 열두달, 행복의 열두달이 비껴있다.

인기있는 력사만화영화 《고주몽》의 창작가들

–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 –

력사만화영화 《고주몽》 련속편의 일부 장면들

최근 공화국에서 력사만화영화 《고주몽》의 련속편 제39, 40부가 새로 나왔다.

이번에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에서는 새 련속편들을 전부들에 비해 내용에서 극적일뿐 아니라 제작방식에서도 한단계 도약한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할 목표를 내세우고 창작전투를 벌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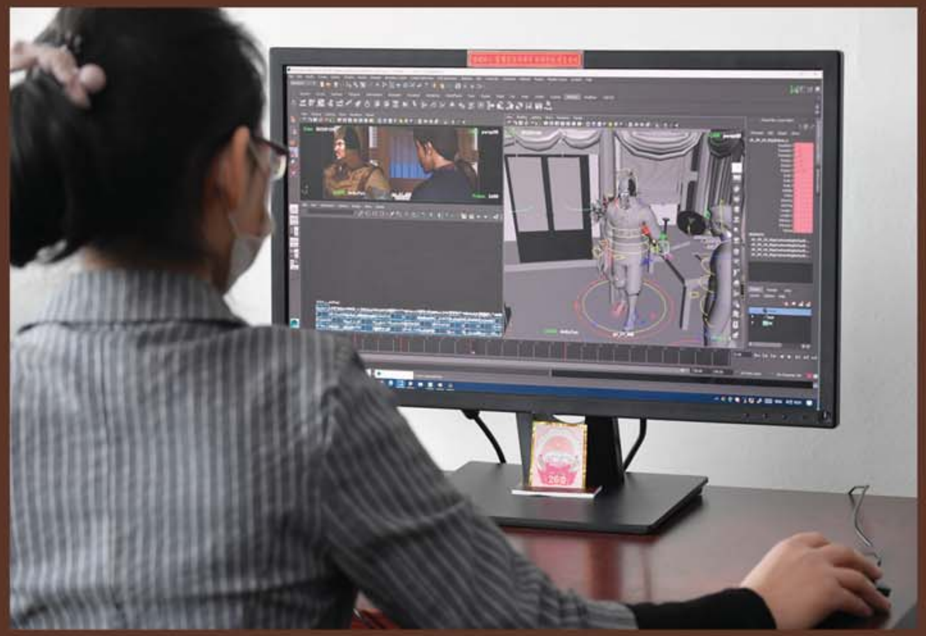
연출대본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림대본, 제작, 편집에 이르는 영화창작의 모든 공정들을 력사적사실에 근거하여 손색없이 형상하기 위해 탐구를 거듭하였으며 3D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보다 생명력있는 화면을 얻어내기 위한 집체적토의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대사형상을 맡은 배우들은 장면에서 외마디소리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인물의 성격과 정황, 환경과 계기에 꼭 들어맞는 참신한 대사형상을 위해 애썼고 작곡가, 편집원들도 더 훌륭한 음악적효과, 편집효과를 위해 창작적열정을 바치였다.

이들의 고심어린 노력에 의해 력사만화영화 《고주몽》의 련속편들인 제39, 40부는 나오자마자 시청자들속에서 《고주몽의 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니 이야기흐름이 새롭다.》, 《인물들의 운명선이 보다 극적이고 흥미진진한것이 특징이다.》, 《3D기술의 매력을 재치있게 잘 살렸다.》, 《등장인물들의 얼굴과 소도구들의 재질이 전보다 훨씬 생동하다.》 등의 호평을 받으며 인기를 끌고있다.

또다시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매진하는 촬영소의 창작가, 예술인들, 이들에 의해 만들어질 다음부에는 또 어떤 새로운것이 깃들겠는지…

사진 로남철, 글 김유정



창작에 열중하는 원도미술가

생동한 화면형상을 위한 토의를 하는 창작가들

정밀하면서도 실감있는 음향효과를 위해

긴장한 창작전투를 벌리는 편집원들

편집시사실에서 창작가들이 화면검토를 하고있다.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높은 력사만화영화 《고주몽》의 련속편들인 제39, 40부를 새로 창작하여 내놓았다.

손짓, 몸짓까지 해가며 대사록음에 열중하는 화술배우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춘희력기감독을 만나주시였다. 주체101(2012)년 10월

녀자력기발전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녀성

- 체육성 체육기술종합국 력기협회 서기장 **김정일**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체육인 김춘희 -

김춘희서기장은 국제체육무대에서 조국의 위상과 민족의 슬기를 떨치고 람홍색공화국기발을 높이 휘날린 림정심, 림은심, 려은희를 비롯한 세계적인 녀자력기강자들을 키워낸 관록있는 력기전문가이다.

소녀시절부터 체육에 남다른 애착을 품고 평양체육학원에서 륙상종목을 전문으로 한 그는 조선체육대학에 입학하면서 력기종목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청춘거리 력기경기관청소년체육학교(당시) 지도교원이 된 그는 력기선수로서의 적성체질을 갖춘 대상들을 선발하여 이악하고 꾸준한 훈련지도로 그들을 전도유망한 녀자력기선수들로 키워냈다.

그는 기관차체육단 력기감독으로 옮겨간 후에도 선수들의 신체적특성을 전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공정별훈련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훈련요구성을 높여 그들이 제30차,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와 세계력기선수권대회 등 10여차의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공화국의 녀자력기발전에 이바지한 그는 여러 차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으며 **김정일**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의 값높은 칭호도 받아안았다.

올해 45살인 김춘희서기장은 현대체육과학에 의거한 새로운 훈련방법과 전술방안을 세우기 위한 고심어린 탐구와 함께 체육단들과 체육학교의 감독, 지도교원들에 대한 지도를 짜고들어 나라의 력기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일념으로 오늘도 드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다.

사진 리춘송, 글 윤금철

지난 기간 김춘희서기장이 키워낸 9명의 력기선수들은 2012년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64개의 금메달, 51개의 은메달, 19개의 동메달을 쟁취하고 조국의 영예를 빛내였다.

감독들이 훈련강령의 요구대로 교수훈련을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드는 김춘희서기장

그는 훈련장들을 자주 찾아 감독, 선수들과의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백금산》의 고수머리

- TV극창작사 배우 강남훈 -

TV련속극 《백금산》이 방영될 때마다 말썽군 류혁의 이름은 줄곧 사람들의 화제에 오르군 한다.

그만큼 류혁의 역을 맡아 수행한 강남훈배우의 진실하면서도 매력적인 연기형상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때문이다.

작품이 나온 때로부터 근 30년이 흘러 당시 젊음에 넘쳐있던 강남훈배우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지만 그는 오늘도 사람들속에서 류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있다.

황해남도 장연군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군사복무를 마친 후 어느 한 예술단에서 배우생활을 하다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문예총국(당시)으로 옮겨가 TV극배우가 되였다.

처음 TV련속극 《철산봉》에 출연한 그는 련이어 《보위자들》, 《백금산》, 《한나의 메아리》를 비롯하여 여러 작품들에서 주역을 담당하였으며 TV련속극 《시대가 부르는 사람》 등에서는 주인공역을 맡아 수행하였다.

그는 배우생활을 하면서 TV련속극 《임진년의 심마니들》(1부-8부)의 연출도 맡아 창작단의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강남훈배우는 올해 환갑나이를 넘겼다. 하지만 창작사업에 바쳐가는 그의 탐구와 노력은 어제와 다름이 없다.

이제 그는 또 어떤 새로운 연기로 사람들을 매혹시키겠는지.

사진 박주성, 글 한진아

강남훈배우가 출연한 TV련속극들중의 일부 장면들

강남훈배우의 단란한 가정

새 작품창작에 열정을 바쳐가는 강남훈배우

《어제날의 장애자소녀가 대학생이 되였습니다》

- 평양시의학대학 의학부 학생 박우인 -

선생님의 등에 업혀 학교로 가던 어린시절과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나날에 찍은 사진들

사람들은 묻군 합니다. 동무가 어제날 장애자였다는데 정말인가고요.

19살 꽃나이에 대학생교복까지 곱게 차려입은 싱싱한 저의 모습을 보면 누군들 그것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10년전만 해도 저는 난치성질병으로 말도, 걷지도 못하는 장애자소녀였답니다. 학교에도 선생님의 등에 업혀 다녀야 했습니다.

(난 영영 이렇게 앉은뱅이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눈물을 흘린적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날과 달은 흘러나를 낳은 부모들조차 손맥을 놓고있을 때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저를 불러주었습니다.

병원으로 떠날 때 《의술이 발전되였다는 나라들에서도 이 병은 못고쳤다는데…》 하던 옆집아저씨의 말이 오히려 작은 가슴을 허비였습니다.

진찰, 수술, 새벽까지 이어지는 협의회…

의사선생님과 간호원언니들은 매일같이 밤늦도록 침상을 지켰고 얼굴도 모를 고마운 사람들이 친자식처럼 따뜻이 돌봐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진찰을 한번 받자고 해도 많은 돈을 내야 하고 남의 자식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도 없다는것을.

400여일이라는 오랜 치료끝에 저는 다시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조선소년단창립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도 지니였고 오늘은 어엿한 대학생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걷게 된것이 정녕 이름있는 병원에서 의술이 높은 선생님들의 치료를 받아서였겠나요 아니면 제 운이 좋아서였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온 나라를 화목한 대가정으로 꾸려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어버이로 모신 내 조국에서 태여난 만복을 받아안은 행운아이기때문입니다.

박우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친필서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과 보답의 마음이 담긴 일기집들

동무들과 함께 교정을 나서며(왼쪽으로부터 두번째)

해바라기학용품을 받아안은 동생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더 안전한 사회》, 허망한 개꿈

새해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말이 나돌지만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지난 1월 5일 서울에서 부산으로 달리던 렬차가 탈선한 사고, 1월 6일 건설중에 있던 건물작업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사고, 1월 8일 바다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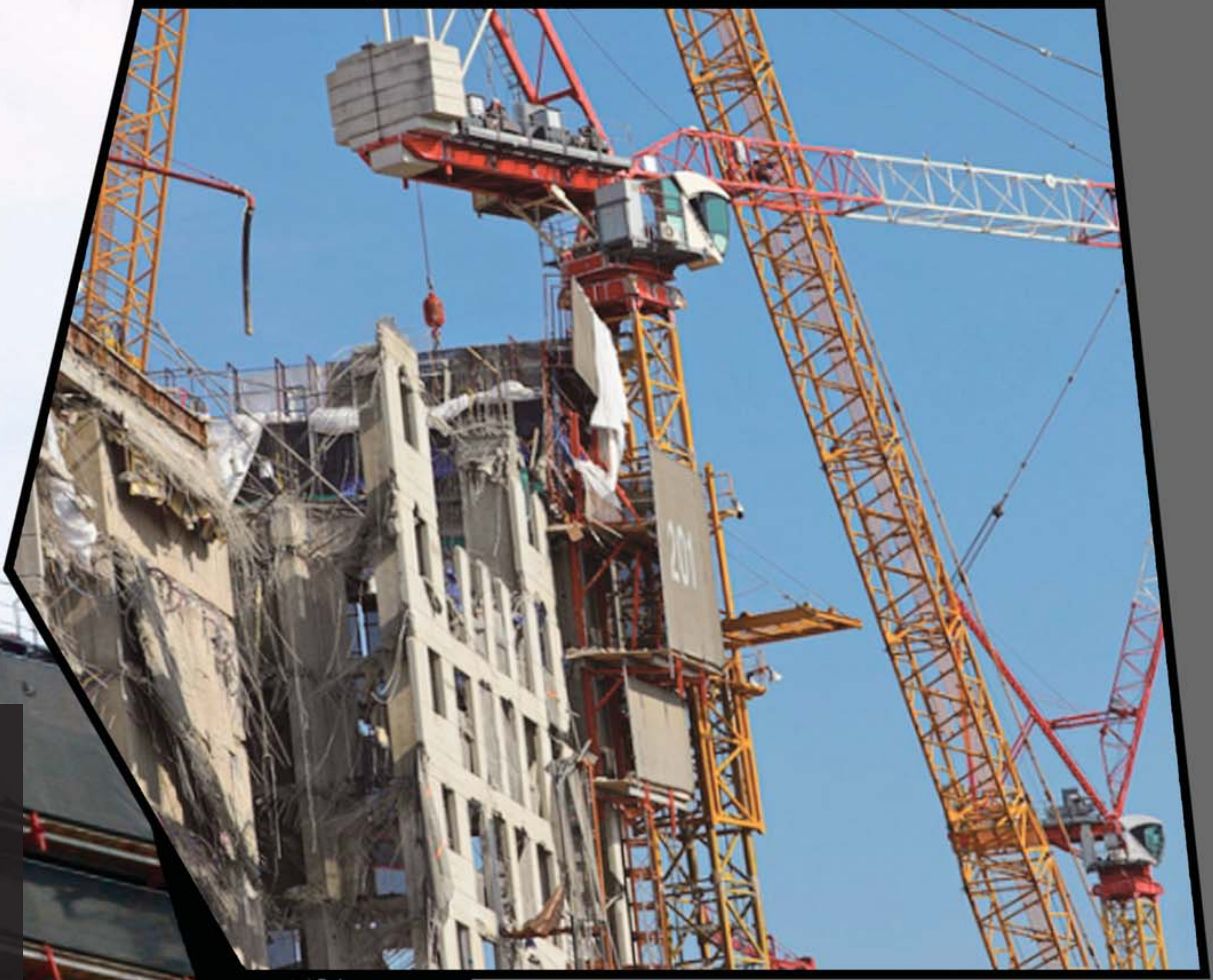
새해벽두부터 련이어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두고 남조선민심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후진국형인재》, 《새해에 들어와 <산재왕국>, <더 위험한 사회>로 가고있다.》고 개탄하고있다.

사람의 생명보다 재벌들의 비위에 맞추어 만들어진 법이 열, 백개가 있은들 자본의 노예가 되여 시시각각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는 근로대중의 운명을 지켜줄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는 남조선에서 《더 안전한 사회》란 한갖 허망한 개꿈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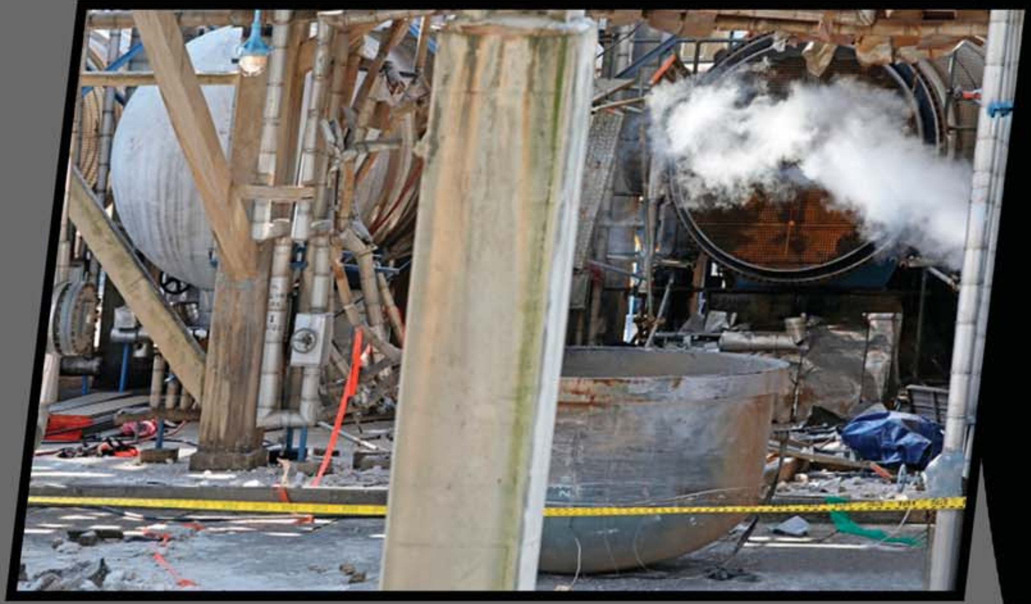
후진국형인재 산재왕국

경기도 평택시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사고현장(1월 6일)



광주시에서 건설중이던 39층건물의 외벽붕락사고(1월 11일)

전라남도 진도군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1월 8일)



전라남도 려수시 석유화학공장폭발사고(1월 11일)

력사유적

칠성문

풍치수려한 평양의 모란봉에 있는 칠성문은 6세기중엽 고구려가 평양성을 쌓을 때 세운 내성의 북문이다. 지금의 문루는 1712년에 다시 세운것이다.

칠성문이라는 이름은 북두칠성의 별자리이름에서 따온것으로서 북문이라는 뜻이다.

칠성문은 두 성벽을 약 10㎙사이를 두고 서로 어기게 쌓고 그 두 성벽 사이에 그와 직각되게 가로세웠다. 성문축대는 화강석을 다듬어 정연하게 쌓고 거기에 무지개문길을 내였다.

축대우에 세운 문루는 앞면 3간, 옆면 2간의 단층건물이며 지붕은 홑처마합각지붕으로서 마루선들과 지붕면들이 잘 짜여있다.

칠성문에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운 우리 인민들의 애국적투쟁이야기가 깃들어있다.

1010년 우리 나라에 침입한 침략자들은 칠성문앞에서 된타격을 받았으며 임진조국전쟁시기인 1593년 1월 평양성탈환전투때 의병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칠성문으로 제일먼저 쳐들어가 경상골과 련광정일대에 도사리고있던 왜적 1만명이상을 격멸하고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우리 민족의 높은 성문건축술을 보여주는 칠성문은 오늘도 공화국의 민족문화유산보호정책에 의해 민족의 귀중한 문화적재부로 훌륭히 보존되고있다.

글 윤금철

옛 그림

김홍도와 그림 《집짓기》

우리 나라 력사에서 김홍도라고 하면 조선봉건왕조시기였던 18세기 후반기 미술을 대표할만큼 널리 알려진 유명한 화가이다.

그는 1745년에 출생하였다.

김홍도는 자를 사능, 호는 단원, 단구, 서호, 고면거사, 취화사 등으로 불리웠으며 도화서 화원으로 있다가 그림을 잘 그려 그에 대한 표창으로 현감벼슬까지 받았다.

김홍도의 그림들로는 《집짓기》, 《대장간》, 《서당》, 《씨름》, 《춤》, 《논갈이》 등이 남아있다.

그림 《집짓기》는 근로인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로동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하려는 화가의 의도가 가장 뚜렷이 발현된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화가는 화면우에 농촌마을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집짓는 장면을 형상하였다. 화면왼쪽에 배치된 집은 벌써 골격이 다되고 기와와 흙을 올려 완성단계에 이르렀는데 한옆에서 대패질에 여념이 없는 목수 등 모두가 자기의 뚜렷한 모습을 가진 인물들이다. 올려던지는 기와를 받아놓기에 열중한 나머지 옷고름이 다 풀어진것도 모르고있는 인물이며 일군들이 흥이 나서 일하는 모습을 재미나게 바라보기에 여념이 없는 로인의 모습도 개성적이다.

화가는 집짓기에서 가장 절정에 이른 장면을 선택하여 화면에 옮김으로써 보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림에는 근면하고 소박한 농민들에 대한 화가의 친근한 감정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글 장윤정

낸곳: 통일화보사　　주소: 평양시 중구역 련화2동
사서함: 조선 평양 국제우편국 사서함 150　　　ㄱ-1529ㄷ